

# 2025 APRIL 4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복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CONTENTS

###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책 간담회

### 02 FOCUS

임상병리학과  
신설과 증원은  
누구를위한것인가?

### 06 INTERVIEW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 인터뷰

## 제507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한  
디자인 서경아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책 간담회 실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회와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집행부 및 회원은 3월 10일(월) 오후 4시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간호법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등 의료계 정책 현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과 허봉현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장·대한안경사협회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협회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

했고 이광우 협회장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전재진 상임부의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허봉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3월 중순 예정됐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임상병리사 고유 업무범위를 확립하고자 의견을 피력했다. 김



기유 정책실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필수 의료행위이자 검사의 시작인 채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이며 임상병리사를 배출하는 전국 고등교육기관 52개 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에 채혈학 이론 및 실습 등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와 각종 학회 및 보수교육을 통해 채혈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채혈 심화과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및 지역 거점병원 25개를 대상으로 채혈 수행 직업군을 파악했을 때, 모든 기관에서 임상병리사 채혈 비율이 가장 많고 평균 70%의 비율로 임상병리사가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직종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 송기선 학술부회장은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송기선 부회장은 “진단 검사는 병원에서 입원, 퇴원, 투약과 같은 중요한 의학적 결정의 60~70% 영향을 미칠 만큼 활용 가치가 있다”며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위음성 등 예방 가능 오류를 줄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고령자 및 장애인의 만성질환을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화성시와 포천시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임상병리사가 참여한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특정 보건 의료 직역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 의료인력이 고유한 면허와 자격에 따라 지역과 가정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임상병리사가 돌봄통합지원법 채택의료 지원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노인 만성질환 대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현장검사 △재활, 치매 장기요양 대상 퇴행성관절염, 근전도, 뇌파, 치매연관검사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ICT 이용 원격 데이터 모니터링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에 전문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임상병리사 직역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중 참여인력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협회의 발표를 경청한 후, “협회의 의견을 토대로 간호법과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 확인해 보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상병리학과와 신설과 증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 2040년 대학 절반 이상 사라진다.

“2024년 출생아 수 24만 명, 대학입학정원 34만 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다.”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2040년이면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연구결과로 보도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전국 모든 대학의 주소지와 위도·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 후 거리에 따른 2024년도 대학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총원율,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한 자료에서의 분석 결과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신입생 경쟁률은 서울지역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런 경향은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과 졸업자 취업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벚꽃엔딩’ 속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기에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임상병리학과에서 배출되는 임상병리사의 현실

임상병리학과 졸업 후 취업률은 의사정원에 따른 의사집단행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안개속의 의료환경에서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채용이 예전과 같지 않기에 취업률이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면허등록자는 2019년 대비 임상병리사 수가 17.4% 증가하여 연평균 4.01%가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자동화 검사장비 도입의 증가로 인력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고 신규검사(분자진단 등)의 도입으로 인력수급이 필요하나 각 병원의 운영난으로 인력수급이 동결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보건대학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5년간 타 의료기사 직종보다도 국가고시 합격률(84.6%) 높기에 상대적으로 공급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방사선사 75.96%, 물리치료사 81.74%)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율의 차이가 두 자리이다. 예를 들면 2024년 지방에 임상병리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지원율 저하로 폐과가 되었고, 일부 지방대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서 임상병리학과 지원을 미달로 수능 미응시자에게도 수능위주 일반전형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 성적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키겠다는 교육정책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신입생 미달사태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불신과 자존감이 하락하는 심리적 혼란 상태를 겪고 있다. 또한 미달된 학과에서 재학해야 하는 지 대한 고민에 빠져 편입 또는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수도권의 임상병리학과 증설과 증원이 과연 필요한가?

지방대학 임상병리학과 문제를 단지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대학 임상병리학과 폐과 또는 지원율 미달이라는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 2025.2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는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냈다. 각 대학에 교육여건과 지역별 의료여건에 따른 학생정원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감축이 아닌 기존의 입학정원을 유지한 채 학생정원 계획을 제출한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유리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이 지방대학에서 폐과된 입학정원을 임상병리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입학정원이 증원 요청한 대학에 배정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지역의료발전 저해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수의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임상병리사 전문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결과와 지역에 필요한 보건 의료인력의 부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학제단일화와 함께 입학정원조정이 답이다.

입학정원 산정문제는 현재 3~4년 학제가 공존하고 있는 각 대학의 학제단일화도 맞물려 있다.

현재 의료기사 가운데 물리치료사의 경우 지난 2024년 4년제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화됐지만 임상병리학과는 아직까지 3~4년제가 공존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들이 검사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이미 시작됐고 사상초유의 의정사태로 인하여 취업난이 극심화됐으며 지역 보건 의료인력이 사실상 공급 초과 현상으로 이젠 더 이상 임상병리사의 정원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26년도 입학조정에 대한 산정은 반드시 협회 및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와 사전에 조율해야 하며 보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법제화와 주기적인 보건 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통한 인력양성과 배치가 요구된다.

## 2023년 제갈석 전 경남도회장 윤리위원회 및 징계 관련 경과보고

2023년 27대 중앙회 집행부에서 시행되었던 제갈석 전 경남도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가 적법한 절차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무효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7대 중앙회 전 협회장은 협회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갈석 회장을 징계받게 하여 당사자는 물론 경남도회 회원들에게 2년여 가까이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27대 중앙회 집행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3. 07. 10	안찬 전 경남도회장이 27대 장인호 협회장에게 제갈석 회장 문책 민원을 제기
2023. 08. 08	민원의 사실 확인 및 상임이사회 의결도 없이 제갈석 회장 윤리위원회 징계심의개시를 결정
2023. 11. 02	윤리위원회는 법적고소를 중앙회 회장만이 해야 한다는 정관해석으로 제갈석 전 경남도회장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
2023. 12. 16	제179차 중앙회 정기이사회에서 징계찬성으로 징계를 확정
2023. 12. 28	제갈석 회장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2024. 0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계절차의 위법과 소속 회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할 권한이 오로지 회장에게만 전속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사유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202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b>무효</b> 임을 확정
2024. 12. 17	협회 윤리위원회 재심
2024. 12. 18-19	윤리위원회 서면결의
2024. 12. 21	제183차 정기이사회에서 <b>징계무효</b> 의결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종태 국회의원과 상견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3월 1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과 상견례를 실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시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담당한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광우 협회장, 송기선 학술부회장, 이도왕 공보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 지우현 총무이사,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석했다.





# 제505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3월 15일(토) 오후 2시 YBM연수원에서 제50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집행부 워크숍과 함께 진행됐고 상임이사 19명 중 17명, 부장 26명 중 17명, 총원 45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



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제185차 정기이사회 및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개최 안내, 2025년 506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협회 신규 TFT 구성 보고,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울산)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울산시회 2차 홍보지원금 지급 예정, 2025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및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예산 지급,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징계효력정지가처분 관련 비용 지급 보고(안찬 회원),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건물의 공사비 적정성검토 용역 계약금 지급의 건 △학술부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 제1차 연수강좌 결과보고, 정책과제 모집 건, 울산 종합학술대회 업무 진행 건, 학술부 소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업무 보고 △교육부 제1차 교육부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사무국 회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수교육 관련 회의, 제1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및 분과학회장 연석회의, 시도분과학회 연합 보수교육 회의, 2025년 보수교육 계획 △국제부 해외학회 참가 관련 보고의 건,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학생포럼 관련 보고의 건, AAMLS 관련 보고의 건, IFBLS 관련 보고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병리협보 광고 계약의 건, 장기계약(3년 및 5년) 광고료 설정의 건, SNS 관리,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의 건, 옴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5 미래의료리더십포럼 최고

위과정 제2기 참여 △법제부 2025년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정무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후원금(찬조금) 지급의 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장종태 국회의원 상건례 △대외협력부 역사기록보존위원회 위원 현황 변동의 건,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신설 항목,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부 1차 회의, 공익신고 위원회 2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소위원회 2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이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16개시도 중소병의원 정책간담회 산출내역 내용 일부 변경 안을 진행했다. 안건은 의결됐고 제505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 집행부 워크숍 진행



상임이사회 폐회 후에는 집행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28대 집행부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역사회돌봄지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고 협회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과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발표를 실시하며 협회의 성공적인 2025년을 다짐했다.



## 중앙회 동정

- |        |                                    |                       |  |
|--------|------------------------------------|-----------------------|--|
| 3월 5일  | 제1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T 회의               | 3월 22일                | 충청남도 중소병의원 간담회                         |
| 3월 7일  | 제1차 회관운영위원회 회의                     | 3월 25일                | 제2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T 회의                   |
| 3월 10일 | 장종태 국회의원 간담회<br>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 3월 27일                | 전산시스템 개발업체 간담회<br>제2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 3월 15일 | 제505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워크숍              | 제1차 임상병리사 학제단일화 TF 회의 |  |
| 3월 17일 | 제1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 3월 29일                | 제16회 대만학회 점검 회의<br>2025년 연구·정책과제 발표 심사 |
| 3월 19일 | 간호법 시행령 관련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 논의 회의       | 제3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
| 3월 20일 | 인천광역시 중소병의원 간담회                    | 3월 31일                |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설명회                        |
| 3월 21일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홈페이지 운영 회의               |                       |  |

<https://pr.segenemedical.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



##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가 1월 23일(목)부터 2월 2일(일)까지 개발도상국 식수 위생 개선을 위한 'Aqua-Viva'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ODA 사업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와 임재원 교수가 참여해 김성현 교수에게 이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현 교수입니다. 저는 학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임상병리학과 분자진단학을 전공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본부 기획처 부처장 겸 대학혁신 추진단 부단장, RISE 사업단 부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Q.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실시한 이번 'Aqua-Viva'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2024년 유엔 물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 중 22억 명에 달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의 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수질 오염, 위생 문제, 기술 및 인프라 부족, 경제·사회적 문제 등 다차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가톨릭대는 한국전쟁 이후 부산지역 전쟁 피난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미국의 메리놀수녀회에서 메리놀병원을 지어 의료 지원을 하던 도중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메리놀간호학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더욱 힘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CUP Aqua-Viva 사업은 부산가톨릭대 사회공헌단 주관으로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등 개발도상국 식수 안정성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환경 및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국제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으며, (사)이태석 신부 참사랑 실천사업회, 울산시티병원 및 개인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용수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으며, 상수도 시설의 부족으로 물 위생이 심각하게 저해돼있다고 판단되는 캄보디아(프레이벵)와 동티모르(리퀴도이)를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했고, 해당 지역에 바이오샌드필터(BioSandFilter)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했습니다. 바이오샌드필터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들 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으로 모래, 자갈 등의 재료가 주가 되므로 현지 지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작과 유지보수 비용도 낮아 저소득 국가에서도 쉽게 도입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인 캄보디아 찜라은뵈지어 고등학교에 바이오샌드필터 1개, 동티모르 리퀴도이 성 가르멜 고등학교에 바이오샌드필터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의 학생 및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여과된 물 음용을 통해 수인성 질병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대학의 강점을 살려 현지 학생들을 위한 보건 의료 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접촉성 감염병 질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손 씻기 위생법과 수인성 감염병 질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식수 이용 및 물 위생법 이론, 실습 교육을 시행했고 소변 진단검사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Q. 이번 ODA 사업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A. 이번 ODA 사업에는 소방방재학과 김예진 교수(바이오샌드필터 설계 및 시공),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 임재원 교수(병원성 세균 및 수질보건 교육), 인성교양학부 김덕현 신부, 원형준 신부, 김성양 신부,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 강동욱 신부(교육 ODA 프로그램 설계)가 참여하였으며, 현지에 파견되어 한국과 가톨릭에 대한 선교를 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레이벵 김종이 신부님과 동티모르 리퀴도이의 김민정 신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ODA 사업에서 저와 임재원 교수님은 임상병리사로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더불어 소변검사, 그리고 바이오샌드필터에서 걸러져 나온 물에 병원성 세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속배양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어지게 될 ODA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이와 연계된 학생들의 교육 적용 및 공헌활동을 돕기 위해 학생식당, 교실, 화장실, 기숙사, 성당 등 학생들이 주로 단체생활을 하는 곳들의 위생 상태나 보관이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그 지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런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임상병리사라는 것을 현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Q. ODA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A. 현재 캄보디아 프레이벵 지역의 경우, 교육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프레이벵 지역의 타 학교들로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한 바이오샌드필터 설치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가톨릭대 사회공헌단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찾아가 학생들 대상 보건교육, 의료봉사, 보건실 시설 개선, 성당, 학교, 학생식당, 화장실, 교실 등 단체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개인위생과 수인성·접촉성 감염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비누, 곤충(파리 및 모기) 퇴치제 등을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직접 비교과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아이템들을 현지에 가지고 가서 직접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에 ODA 사업을 시행한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현지의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여 의료보건 전문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매년 2~4명씩 가톨릭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빈센트 수녀회에서 동티모르 딜리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추후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를 다시 보내서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의료보건인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처음 부산가톨릭대가 세워지게 된 배경과 동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받았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병리협보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ODA 사업 참여를 통해 임상병리사 또한 ODA 사업에서 정말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임상병리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임상병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우리 대학과 대학에서 추진하는 ODA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개인 또는 진단기업에서 후원의 뜻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여정을 웃으며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과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 상반기 중소병의원 회원 간담회 진행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가 지난 2월 20일(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중소병의원 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병의원 회원 45명과 중소병의원위원회 및 집행부 16명이 참석했다.

황문선 회장은 간담회 시작 전, “중소병의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 각 구회별 간담회를 올해부터는 통합하여 중소병의원 회원 간담회로 상·하반기에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간담회가 좋은 시간되시길 바라며, 주변에 알리어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중소병의원 회원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노재호 서울시회 중소병의원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중소병의원위원회 소개로 시작됐다. 안영 서울시회 건강검진평가교육 전문강사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미성 서울시회 중소병의원회장은 중소병의원위원회 및 서울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중소병의원 회원들은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로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위하여 중소병의원위원회와 서울시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으며 하반기에 있을 간담회 또한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회는 4월 1일(화)부터 신청 시작한 정회원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 사업과 회원문화체험행사(7월 또는 8월), 한마음단합대회(10월 또는 11월), 정년 퇴임자와 함께 하는 간담회(12월) 등 다양한 행사와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및 학술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일시	장소
1차 보수교육	2025.04.19 (토) 14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
서울시회 학술제	2025.06.28 (토)14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 제일제당홀
2차 보수교육	2025.08.23 (토) 14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
중소병의원 학술제	2025.10.25 (토) 14시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

##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2025년 제1회 해피투게더 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3월 7일(금) 2025년 제1회 해피투게더 사업을 실시했다. 제1회 해피투게더 사업으로는 순여성 병원을 방문해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들과 △회원과 의 소통으로 유대관계 확대 △업무 및 새로운 정보 교류 △회원의 목소리 경청 및 반영 △중앙회 및 부산시회에 건의 사항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 신경전도 및 근전도 실무자교육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신경전도 및 근전도 실무자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3월 8일(토) 시작해 3월 2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남정보대학교 K-메디칼에서 실시되며 신경전도 및 근전도의 기본 이론교육(강사 문현정) 및 실습(강사 문현정, 구정민)이 이뤄진다.



### 집행부 회의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3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집행부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에 실시할 전반적인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4월 19일 1차 보수교육 시 역할 분담, 실무자 교육 예산 및 차후 교육 유지를 위한 실현 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 ESPO II SLIDE PRINTER



### ESPO II 주요 특징

슬라이드 & 잉크 리본 잔량 3단계 표시

두 개의 100 슬라이드 매거진

내장되어 있는 통합 바코드 스캐너

ESPO II 전용 프리필드 슬라이드 카트리지가 미리 채워져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 제공

WLAN, LAN, USB를 이용한 손쉬운 다중 연결

용매에 강한 잉크 리본

경량 - 무게 4.5kg

쉬운 잉크 리본 교체

### 세 가지 배출 모드

**01 SINGLE MODE**  
싱글 모드는 선택 방식 출력에 적합합니다.

**02 CONTINUOUS MODE**  
연속 모드는 슬라이드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03 FRONT LOADING MODE**  
단독 슬라이드 프론트 로딩은 조직이 슬라이드에 있을 때에도 리필이 필요 없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yunil-lab.com



쇼핑몰  
www.lab-mate.com

##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국가검진기관 평가 대비 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3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본부 회의실에서 중소병의원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5주기 국가검진기관 평가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문성식 회장은 5주기 국가검진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교육은 자가 Web 평가표 입력 및 주요 변동사항(대구경상병원 권미옥)이 진행됐고 두 번째 진단검사분야 평가문항 해설(천주성삼병원 이현주)에서는 검사 장비와 시설관리,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정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다빈도 질의응답(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이재숙)에서는 대구시회 이재숙 행정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 지역



본부 건강관리부 담당자가 다량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교육이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다며 평가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호평했다.

##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2025년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는 3월 9일(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용진육아원에서 봉사활동 및 물품 기부를 실시했다.



광주용진육아원은 1952년 8월 22일 전쟁고아들을 모아 양육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어 현재까지 요보호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전까지 보호해주는 기관이다. 이날 서정훈 회장을 포함한 광주시회 임원진은 물품 기부 후 기관 내 식당 및 강당 청소를 실시했다. 서 회장은 "보육원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기관의 모든 직원들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앞으로도 광주시회는 주위에 어렵고 관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주말 아침부터 나와 광주시회 임원들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차고 모든

##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인천시의회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 세미나 참석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는 3월 11일(화) 오후 2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회 송기선 학술부회장이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대표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보건의료기사의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또한 채희영 회장은 정책연구단원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기여했다. 추후 정책 세미나는 5월 9일(금) ~ 11일(일) 개최되는 의료기사 연합학술대회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 제1차 정기이사회 실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는 3월 8일(토) 오후 3시 경남도회 사무실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실시했다. 중앙회 6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학술위원회 보수교육 진행사항 보고, 중앙회 184차 정기이사회 보고,



중소병의원 간담회 진행사항 보고를 의안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경남도회 집행부는 경남도회 최우수지회패 수상과 정진희 부회장(삼성창원병원)의 대한임상병리사회회장 표창 수상



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눴다. 경남도회는 2024년 회기동안 집행부와 회원이 일치단결해 협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원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지회 및 협회 발전과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지대해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 보수교육 진행사항으로는 3월 22일(토)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실시 예정인 경남도회 분회 1차 보수교육(2학점) 건과 4월 19일(토) 경남 로봇랜드 다목적홀에서 실시 예정인 경남도회 제2차 보수교육(4학점) 건을 의결했으나 3월 22일 예정되었던 보수교육은 취소됐다. 경남도회는 제2차 보수교육과 함께 중소병의원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한 검진기관 평가 교육 시행 진행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3월 11일(화) 오후 7시 구미 금오산 회의실에서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준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회 각 분회에서 교육이 필요한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평일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검진기관 실무자 교육강사인 경북도회 김민주 행정부회장은 검진기관 평가 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평가자료 업로드 방법, 감점이 많은 문항과 주의해야

할 문항, 다빈도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 및 평가 준비 파일 작성법과 참고자료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회원들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조대현 회장은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고충과 현실을 잘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진평가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했고, 추후 진행 예정인 6월 중소병의원 간담회에도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 화성특례시 재가노인 건강돌봄 봉사 참여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아름다운희망봉사



단 및 강남맛집(빛길봉사회)과 함께 화성시 거주 65세 이상 재가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강돌봄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와 경기도 치과기공

사회(회장 김용철)가 주축이 된 이번 봉사활동은 재가 노인들의 원활한 건강유지를 위해 만성질환에 관련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들에게 평소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세척이 어려운 틀니를 전용 장비를 동원해 세척하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회는 혈압측정, 혈당검사, 혈액형 검사 및 피부 보습도를 측정했고 특히 혈당이 높은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진행하며 평소 건강 관리에 소홀한 재가노인들에게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오래전 혈액형 검사를 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검사를 통해 잘못 알고 있던 노인들이 여럿 있어 혈액형을 바로 잡아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경기도회는 설명했다.

또한, 아름다운희망봉사단은 네일케어 등 손발건강,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마음건강상담을 진행했고 강남맛집(빛길봉사회)은 식사지원 등을 통해 모두 한 마음으로 건강돌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사를 빛냈고 재가노인들은 방문을 환영하며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유광철 회장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돌봄에 반드시 임상병리사가 참여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3월 7일(금) 오후 6시 제주대학교병원 세미나실에서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와 성공적인 종합학술대회 유치와 임상병리사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정무상 회장과 남상열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임상병리사회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임상병리사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 2025년 임원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은영)는 지난 3월 22일(토) 서울 성북구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은영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집행부, 수혈전문병리사(SBB) 위원회 위원, 전직



학회장 등 22명의 임원이 참석해 학회의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행정·학술·사업 운영 방안 ▲ 재무·회계 관리의 효율성 강화 ▲ 2025년 추계학술대회 준비 ▲ 수혈전문병리

사(SBB) 수련 교육 및 자격시험 운영 ▲ 회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졌다.

특히, 학회는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여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학회장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술 정보와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는 오는 2025년 임상수혈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11월 1일(토) 삼성서울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변경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철저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제 1회

### 2025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연구논문 공모전

학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 참가대상**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정회원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논문 투고 및 게재 예정자  
2026년 추계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 제외대상** 해당 논문을 석·박사 학위 논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제1 저자가 아닌 경우
- 유형 및 규모** 조직세포검사에 대한 연구, 리뷰 등 자유주제 2편 선정  
논문 당 3,000,000원 (삼백만원)
- 응모 기간 및 방법** 2025년 3월 27일 ~ 4월 27일  
연구계획서 제출  
이메일: heyheyhey78@naver.com
- 대상자 발표** 2025년 4월 30일 (학회 홈페이지 공지)



- 최종 보고** 2026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연발표  
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논문 게재
- 주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주 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4층 조직세포검사학회 사무실  
전화문의: 010-4721-1576(대표간사)  
: 010-6274-0710(학술간사)  
홈페이지: https://www.kshc.or.kr

세부 내용 공문 확인 요망

##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 대한핵의학기술학회지 DOAJ 등재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KJNMT, 핵의학기술)'가 3월 10일(월)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에 등재됐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와 대한방사선사협회 핵의학기술학회가 양대 축으로 소속돼있다.

DOAJ는 전 세계 최대 Open Access(OA) 저널 데이터베이스로서 학술 저널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양적·질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저널 편집자 및 출판사에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현재 136개국 21,451종의 저널이 등재되었으며, 국내는 170종이 등재돼있다. DOAJ에는 국제 OA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약 60개 항목을 평가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저널만 등재될 수 있기에 이번 등재는 국제 규격을 갖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DOAJ 등재 심사는 편집위원 논문투고 비율 등 정성평가가 추가돼 통과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DOAJ 등재를 통해 '핵의학기술' 논문 자료는 더 많은 연구자에게 인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 2025년 품질관리전문임상병리사 교육생 모집 안내

가. 접수일자 : 2025년 5월 1일~ 6월 16일, 수련비용 : 40만원

나. 입금계좌 : 국민은행 048437-04-006536

(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검사정보학회

#### 다. 지원자격

-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시험응시 당해 연도 1월 1일까지의 임상 근무경력이 만8년 이상인 회원
  - 해당 검사학회 주관의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
- 상기 해당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라. 신청방법 : 메일접수 songcmc@dmc.or.kr

(담당 간사: 송성수 H.P: 010-3769-8628)

마. 강의일정 : 2025년 6월 29일~ 8월 10일(7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바. 강의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25-10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하 대강당

사. 강의목록 : 전체 20과목

01. 품질관리 개요
02. 검사실 재무관리(물품 및 재고관리)
03. 검사실 지표관리
04. 검사실 설계 및 Setting
05. 검사실 사용 물관리(정수기)
06. 검사실 운영관리(인증기준)
07. 검사실 수가
08. 검사실 의사소통
09. 환자의사소통(CS)
10. 관리자 리더십
11. 6시그마 정도관리
12. 자동분석기 역사
13. 검사실 인적자원 관리
14. 임상검사정보체계(HIS, LIS, IF)
15. 장비 도입 시 선택과 평가
16. 검사실 검량보전(Calibration)
17. 검사실 안전관리, 위험관리
18. QA및 학습조직
19. 채혈 교육 및 실습
20. POCT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 임상병리사의 연구 무대, KJCLS - 논문을 투고하세요!

#### 존경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여러분,

임상병리사는 정밀 검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진단과 검사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KJCLS)는 협회 유일한 공식 학술지로, 임상병리사의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한국연구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입니다. KJCLS는 임상검사과학 발전을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연구와 논문 투고가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 임상병리사의 연구, KJCLS에서 빛나다

임상병리학 연구는 실무와 연결될 때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KJCLS에 투고하면, 학문적 성과가 널리 공유되고 실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문 한 편이 임상병리학의 발전을 앞당기고,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 KJCLS에 논문을 투고하여 연구의 가치를 더욱 빛내시기 바랍니다.

#### 논문작성법 지원 사업 안내

논문 투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문작성법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록 작성, 참고문헌 정리, 표·그림 구성 등 논문 작성 과정에서 1:1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 윤리 및 논문 투고 시스템 활용 안내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ffice@kjcls.org)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투고

홈페이지 방문하기

<https://www.kjcls.org/main.html>



2025년도 3월호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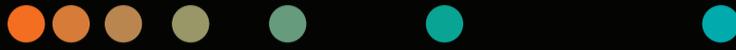
2025 Vol. 57



# Atellica® CI Analyzer

##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4월 25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제506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람중심 고령사회 패러다임 Aging in Place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

**김나은 회원 / 전화번호 : 74775**

올해 면허를 취득해 처음 병리협보를 받아봤는데 이런 좋은 내용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현장검사는 빠른 결과를 알 수 있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일반 가정 환자들은 기계 사용할 줄 모르니 현장검사의 장점이 다 묻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예를 든 것처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현장검사가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당뇨병 환자도 많고, 당뇨병은 조절이 쉽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김수미 배우를 예를 든 것처럼 하여 만성질환자들은 임상병리사들이 현장에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소식

###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최충열 학술부회장 2025년 2월 동남보건대학교 총장상 수상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최충열 학술부회장(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91학번)은 “졸업과 사회진출을 함과 동시에 경기도회에서도 20여 년간 끊임없이 활동하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향상,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더 나은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땀 결과”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인스타그램  
@kamt.official

SCAN ME



카카오톡 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CAN ME



페이스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CAN ME



##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안내

일 시: 2025년 4월 26일~27일

장 소: YBM 연수원

참석자: 중앙회 집행부, 총회의장단, 시도회 · 분과학회 · 산하단체 임원

### 2025년 행정실무 워크숍 일정표

시간	내용
13:00~13:20	행정실무워크숍 등록
13:20~13:30	협회장 인사말
13:30~14:30	김용익 이사장 특별강연((재)돌봄과 미래)
14:30~14:40	휴식시간
14:40~15:10	행정실무교육1 (행정&재무)
15:10~15:40	행정실무교육2 (보수교육&정보통신)
15:40~15:50	휴식시간
15:50~16:20	행정실무교육3 (법제&감사)
16:20~16:30	숙소체크 및 개인 짐 정리
16:30~18:30	단합대회

# 3월



2025.03.13. [후생신보]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 사업, 임상병리사 참여 필수적”



2025.03.13. [의학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성공 위해 임상병리사 참여 ‘필수적’



2025.03.13.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돌봄법 역할 반영 요구



2025.03.14.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장종태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2025.03.16. [데일리메디]  
임상병리사협회, 장종태 국회의원 ‘상견례’



#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부산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사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사회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울산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충남도회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전북도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경북도회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서울사회



대구시  
임상병리사회

대구사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광주사회

광주사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경기도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강원도회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충북도회

충북도회